

한가위를 맞이하여 동학을 생각한다

2023년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동학(東學)을 생각한다. 동학은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 왕조 500년의 명운이 기울 때 새사람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을 세웠다. 140년 전에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해 동학이 태동하지 않았다면 한민족 공동체라는 사상을 지탱해주는 '우리'라는 말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세 자본에 지배당하는 노예 국가로 전락되어 한민족의 열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밤에는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없는 치안 부재와 낮에는 향락에 찌든 사회에서 희망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을 지 모른다. 그리하여 앞을 내다보시는 천주(天主)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학이 한민족의 열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아시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서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는 홍익인간을 계승할 수 있는 동학을 신(神)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8월 14일 밤 수운이 해월에게 도통을 물려주는 '전수심법(傳授心法)'의식을 거행하다

울산저널에서 성강현 문학박사의 '해월 최시형 평전'을 연재했는데, 그 중에서 <해월 최시형, 동학의 도통을 계승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1863년 음력 8월 13일 해월 최경상(본래 이름)은 이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최제우 스승님과 함께 지낼 마음으로 포항에서 경주까지 70리나 되는 길을 새벽 일찍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여 정오가 지나서 용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운 최제우 선생은 해월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몇몇 도인들도 해월과 같은 마음으로 용담을 찾아왔다.

8월 14일 저녁 수운은 자기의 방으로 해월을 불렀다. 수운은 해월에게 무릎을 단정히 하고 앞에 앉으라고 하였다. 해월은 스승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았다. 수운은 해월에게 몸을 움켜져 보라고 하였다. 해월은 아무리 애를 써 보았으나 움켜잡힐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도원기서(道源記書)>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4일 삼경(三更, 밤 12시경)에 좌우를 물리치고 선생(수운을 가리킴)은 묵묵히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경상(해월의 이름)을 불렀다. 경상에게 "그대는 무릎을 단정히 하고 평좌해보라." 하였다. 경상은 이 말씀에 따라 앉았다. 선생이 이르기를 "그대는 수족(手足)을 임의로 굽혔다 폈다



도통승수광경(道通承授光景) - 경주 용담정 도통전수터

해 보라"고 하였다. 경상은 갑자기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하여 몸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이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며 몸을 쳐다보다가 이르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이러하는가?" 하였다. 이 말을 듣자 곧 굴신(屈伸)이 되었다. 선생은 이르기를 "그대의 몸과 수족을 조금 전엔 펴지 못하더니 지금은 펴니 왜 그러한가?" 경상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고 하였다. 선생은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조화(造化)의 큰 것이로다. 후세에 어지러움이여, 신중하고 신중하라."

수운은 해월을 불러 그의 도력(道力)을 시험한 것이었다. 수운의 마음이 그대로 해월의 몸에서 작용하는 것을 통해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통해진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확인하였다. 이 의식을 마치고 도통을 물려주었다. 수운은 해월에게 수신정기(守心正氣) 네 글자와 부도(符圖), 그리고 수명(受命)이라는 글씨를 적어주었다. 그리고 시 한수를 내려주며 "그대의 장래를 위한 강결(降訣)이니 길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수운이 찾는 후계자의 덕목에 부합한 사람은 해월 최시형이었다

용담에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검악에 사람이 있어 일편단심이로다.

龍潭水流四海源
劍岳人在一片心

이 시의 앞구절 용담(龍潭)은 수운이 동학을 창도한 곳을 말하고 뒷구절 검악(劍岳)은 해월이 사는 검등골을 지칭한다. 이 시구는 수운이 이전에 지은 '용담수류사해원 구악촌회일세화(龍潭水流四海源 龜岳春回一世花, 용담에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龜尾山, 용담의 뒷산)에 봄이 돌아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의 뒷구절을 고친 것으로 용담에서 시작된

동학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고 검악 출신의 해월이 일편단심으로 이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해월에게 도통이 전수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해월은 자신의 재주가 미천하여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거절하였으나 수운은 '천명(天命)'이라고 말하면서 "사시지서 성공자거(四時之序 成功者去)라 하였으니 성공한 자는 가고 새 사람이 나와 일을 맡는 것이 천리가 아니고 무엇이었나? 나는 가야 할 때가 되었으니 보네. 그대에게 모든 일을 당부하고 갈 터이니 그리 알게."라고 일축하였다. 그리고 교단의 모든 책무를 해월에게 맡겼다.

다음날인 8월 15일 추석을 맞아 용담을 찾은 제자들에게 수운은 해월에게 도통을 전수했음을 공식적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해월은 수운을 이어서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되었다. 수운은 해월에게 7월 23일 북도주중인(北道主中人)의 직책을 내려 교단의 직무를 일부 맡긴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통(道統)마저 물려주었다. 이때 해월의 나이가 37세였다.

평범한 농부였던 해월이 동학의 도통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찍이 부모를 여우고 친척집에 더부살이하며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어린 시절, 17세에 제지소의 직공으로 들어가 손이 부르도록 일하며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던 청년 시절, 결혼 후 처가살이와 마북에서 동네 집강(執綱)으로 일하며 주위 사람으로부터 격려적 대접을 받던 장년 시절을 보내던 그가 동학에 입도한 지 2년 만에 동학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

해월 최시형의 '향아설위(向我設位)'

"죽은 뒤에 귀신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아닌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서 배회하겠는가? 그러므로 제사 지내는 나, 즉 상제 앞으로 왜냐나 밥그릇을 돌려놓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사람이 하나

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동희 선생은 수운이 찾는 후계자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첫째는 마음이다, 그(수운)의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吾心即汝心)이 되어 그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야 하고, 둘째는 근기(根氣)이니, 어떠한 난관이 있다라도 이를 타개할 신념과 투지를 갖춘 사람이야 하고, 셋째는 인덕(人德)이니, 덕성 있고 포용성이 있어서 수많은 도인들을 능히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넷째는 학식(學識)이니, 천도를 깨우쳐서 천지의 운수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기득권의 비진리가 지배하는 암흑 세상은 천명(天命)을 받은 의인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한다

해월은 늘 비밀리 도망다녀야 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보따리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 그러다 관군이 급습하면 보따리 하나만 돌려메고 흔적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렇게 그가 도망 다닌 기간이 35년 간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도망 다닌 도버리꾼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다가갔다.

해월은 수운의 가르침인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하였다. 사인여천은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이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저 건너방에서 배를 짜고 있는 아나니 하늘입니다."라는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우리 도인 중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유무상사(有無相資)는 당시 빈천한 사람들을 동학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월은 백성의 벗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신을 모신 하늘의 사람이 되었듯이, 수운 최제우가 천주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신을 모신 대신사(大神師)가 된 것은 같은 이치다. 또한 아브라함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장자상속에 따라 아들 이삭에 옮겨져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수운 속에 계신 천주 하나님이 오십즉여심(吾心即汝心)의 원리에 따라 해월에게 옮겨져 해월 신사(神師)가 된 것이다.*

임을 표시하는 것이며, 천지 만물이 내 몸에 있다는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승리제단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이 현재 산 사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내세가 현재라고 한다.*

나'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이 37세가 되던 1860(庚申경신)년 4월 5일부터 무극(無極)의 운(運)이 곧 닥칠 것이라고 전도를 시작하여 그다음에 화운(火雲) 강중산 선생이 63궁지운(三十六宮之運)으로 바통을 이어받고 그다음에 72궁(七十二宮)의 목운(木運) 박태선 영모님 그리고 마지막 3락(三略)의 6도(六道)에 해당하는 금운(金運) 조희성님에 와서 무극대도를 이룬다.

정도령 조희성님이 무극(無極)의 도(道)를 이룬 주인공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6>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어떤 점이 다르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성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변덕쟁이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요,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지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다.

끝까지 참지 못한다거나,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언제는 충성을 안 하는 그런 변덕쟁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겸손

꿈이 큰 사람들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대한다. 남을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겸손함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다.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크게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겸손해야 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너그러우며 호감이 가고,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며, 협조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 덕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친구가 더 많으며 애정 넘치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겸손은 뛰어난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험그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밑바닥 생활이 길었다는 것,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운 좋게 성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생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뛰어난 재능은 인물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난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상사라면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잘난척하는 사람은 적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벌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서 빠르게 살아 올린 성공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재능이 뛰어나고 겸손한 사람은 이타적(利他的)이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는 그의 뛰어난 재능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 됨됨이에 마음으로부터 그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칼집이다. 칼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칼은 적도 베지만 나도 베일 수 있다. 칼은 필요할 때 써야 하겠지만, 칼집에 넣어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 재능은 자신을 현재의 위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해준다. 이때 겸손은 시기를 막아내고 견제를 제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준다. 또한 겸손은 귀와 눈을 겸허하게 열어 놓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게끔 한다. 그래서 재능만 있는 이는 현재 완료형에 머물지만, 겸손을 겸비한 이는 미래를 향해 진행형으로 날 발전한다.

앞길에 막막한 순간에도, 자신을 한 발 더 나가도록 해주는 힘이 겸손이다. 자신을 낮추고 비웠을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슬기가 생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그러나 재능과 겸손은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고난 본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은 종교적 힘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겸손은 땅과 같다. 밟히고 쓰레가까지 받아들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하기 때문이다.*

무극대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민족종교 동학과 연관된 후천운의 수운 최제우 선생과 화운 강중산 선생에 이어서 중천운의 목운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 조희성님에 이르러 무극이 회복되어 불생불멸하는 황극중천시대가 열린다는 변천과정을 그린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은 유불선을 통합하는 원대한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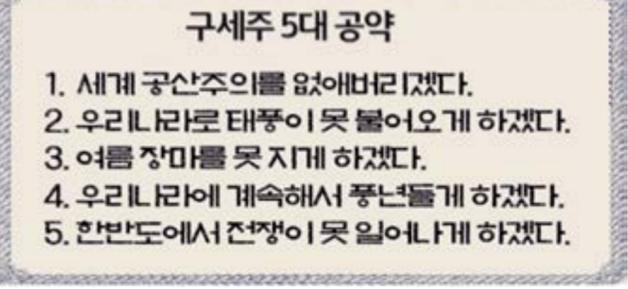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강중산(姜中山) 선생은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彌勒)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최제우(崔濟愚)의 경생(更生)

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라[도전(道典) 2편 40:1~4]』고 말했는데, 이는 인류를 바른길로 이끌 스승인 금운(金運)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구세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지역리도수(天地易理度數)의 변천과정을 묘사한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에 따르면,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은 2략(二略)의 3도(三韜)에 해당하며, 3도(三韜) 후천지선천선하도(後天之先天神仙河圖)는 수운지시삼극지천(水雲之時三極之天)이라고 하였고

이를 삼역대경에서는 靈符生壽而天一生水之水雲先師(영부생수이천일생수지수운선사)라고 하였으니 이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이 54궁지운(五十四宮之運)으로 오셨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용담(龍潭)이다."라고 최제우 선생이 말한 것은 당시에 수운(水雲)으로 오셨음을 자인하는 뜻이다.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이 1860(庚申경신)년 4월 5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접했던 그 날에 지은 가사, 『용담가(龍潭歌)』에서 "어허사상 사람들이 무극지운(無極之運)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거듭하는 방법)을 역조창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조희성님 자신이 태초 위일체 하나님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되었다는 점이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